

## 안성판 방각본의 소설 판본\*

이정원\*\*

<차 례>

1. 서론
2. 안성판 방각본의 소설 판본 현황
3. 안성판 방각본 소설과 경판의 관련 양상
4. 안성판 방각본 소설의 출판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안성에서 발행한 방각본 소설이 무엇이고, 그것은 경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발행되었는지를 정리했다.

안성판 방각본 소설을 발행한 곳은 ‘안성 동문리’, ‘북촌서포’, ‘박성칠서점 세 곳이었다. 이는 간기와 판권지에서 확인된다. 이 세 곳에서 발행된 작품은 삼국지를 비롯한 11작품으로서, 판목은 13판목이다. 각각의 판본은 경판을 번각하거나, 아니면 축약 또는 정사(精寫)하여 개각하거나, 아예 판목 자체를 인수하여 재인행한 것이다.

안성판 방각본 소설의 출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판 시기와 출판 주체이다.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발행자인 박성칠의 생몰년도(1856~1923)가 밝혀졌고,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한 춘향전의 표지에서 소장(所藏) 기록(丙午年, 1906)이 있어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북촌서포 이전에 박성칠이 운영하는 방각소가 있었는가, 그리고 안성 동문리 방각소를 운영한 것은 누구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본을 대비하여 보면, 박성칠이 안성 동문리의 방각소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AS2030).

\*\* 서강대학교

## 1. 서론

안성판 방각본 소설은 경판본과 번각 관계에 있는 것이 많아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 받지 못해 왔다<sup>1)</sup>. 그래서 안성 방각본의 판본을 발굴·정리하고, 이것이 갖는 문학적, 출판학적, 지역문화적 의의를 탐색하는 작업 또한 미진했다. 이것은 출판 자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장(死藏)되거나 사멸(死滅)되는 특성을 지녔고, 또한 방각본 출판을 단지 문학적 또는 출판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넓게는 사회문화적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우려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안성 방각본의 판본들을 새롭게 발굴, 정리<sup>2)</sup>하고 출판 입지

---

1) 안성판 판본을 정리한 논문들로 다음이 있다.

김동욱, 「한글 고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0, 38~67쪽

김동욱, 「坊刻本에 대하여」, 『동방학지』 11,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0, 97~139쪽.

이창현, 『京板坊刻小說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창현,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 2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98~140쪽.

이민희, 「조선 후기 경판 방각소설 판본의 형태물리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정원,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61~184쪽.

최호석,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173~197쪽.

2) 이정원(2005), 최호석(2006).

를 분석하는 논문들<sup>3)</sup>이 나오면서 안성 방각본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성 방각본을 문학적, 출판학적, 지역사회학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이처럼 새롭게 발굴된 안성판 방각본 판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당연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이 여전히 경판과 번각 관계에 있는 판본이거나, 동일 판목으로 인행된 판본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새 판본들은 그 자체로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출판학적인 의의는 있지만, 경판과의 대비는 동일 판목을 대상으로 개별 작품 이본론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이창현 교수가 이를 집대성하였기에<sup>4)</sup> 이에 관한 논의는 기존 논의를 정리,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둘째는 새로운 자료들,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된 판본이나 출판업자들에 대한 인적 정보가 수습되면서, 기존에 예상하였던 안성판 방각본의 출판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예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예상을 해 보기로 한다.

3) 이창현, 「경판방각소설의 상업적 성격과 이본출현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79~208쪽

최호석, 「방각본 출판의 경제성 시론」, 『우리文學研究』17, 우리문학회, 2004, 361~388쪽.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국제어문』34, 국제어문학회, 2005, 89~120쪽

4) 이창현(1995), 이창현(1999). 이창현(1995)는 다음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기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 2. 안성판 방각본의 소설 판본 현황<sup>5)</sup>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한 방각본은 출판 시기나 장소, 주체 등이 잘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기(刊記)에 출판 장소와 시기가 새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것도 부지기수다. 다만, 1909년 2월 23일, 출판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방각본에도 판권지(板權紙)가 붙게 되고, 이로써 누가 언제 어디서 책을 발행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수한 방각본 판본들에서 안성판 방각본을 판별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는 판본의 말미에 “안성동문이신판”이란 간기가 새겨져 있는가. 둘째는 간기가 없어도 판권지의 발행소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안성군”으로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sup>6)</sup>에 따라 안성판임을 판별하게 하는 간기나 판권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표 1. 안성 방각본의 발행소

발행소	발행소 주소	발행자/인쇄자	비 고
안성 동문리	京畿道 安城市 寶蓋面 동신리 동문마을	?	
北村書舖	京畿道 安城郡 其佐面 本里	朴星七/安萬浩	본리=기좌리
朴星七書店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 461	朴星七/芮一成	

그런데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된 판본들은 “안성동문이신판”이란 간기가

5) 안성판 방각본의 자세한 출판 현황은 이정원(2005), 최호석(2006) 참조.

6) 이창현 교수는 안성판 방각본 판별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에 기존 연구자의 감식을 보탤다. 이에 따라 동양문고소장본 『소대성전』(전집 1. 561~571쪽), 김동욱소장본 『수호지』(전집 2. 19~49쪽), 동양문고소장본 『심청전』(전집 2. 131~141쪽)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필자는 이들 판본은 제외한다. ‘전집’은 다음의 책을 가리킨다. 이하 동일. 김동욱,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1~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4.

있는데, 박성칠서점이나 북촌서포에서 발행한 판본들 중에도 이 간기가 있는 판본이 있다. 즉, 원래 동문리에서 간행한 판본을 북촌서포나 박성칠서점에서 다시 발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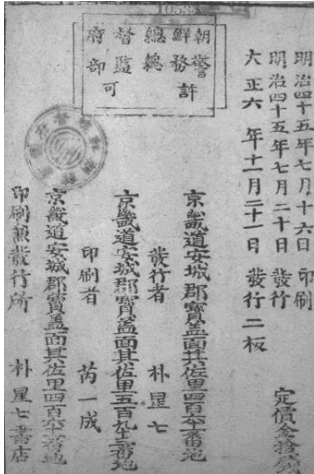


그림 1 <춘향전>의 판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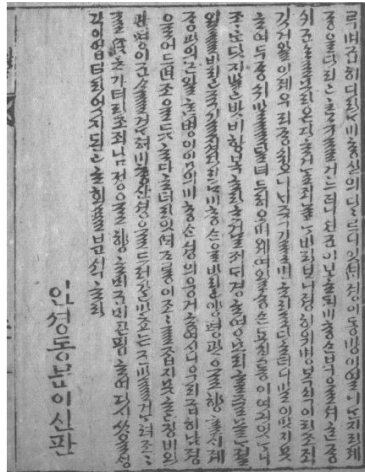


그림 2 <삼국지 권지습>의 간기 확대

또한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발행자가 박성칠로 동일인이고, 춘향전의 경우 1912년의 북촌서포본과 1917년의 박성칠서점본에 대해 판차(版次)를 연속해서 매기고 있다는 점<sup>7)</sup>에서,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재판본들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성판 방각본 소설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sup>8)</sup>.

7) 이창현(1999), 133~134쪽. 이정원(2005), 174~177쪽 참조.

8) '소장처'에 쓰인 약어들은 다음을 가리킨다.

동양문고: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예상 현재 전하는 판본은 없지만 다른 책의 판권지를 통해 발행을 추정. 국도관: 국립중앙도서관. 단국대: 단국대학교 도서관. 서강대: 서강대학교 도서관. 김동욱: 김동욱 소장.

'출전에 쓰인 번호들은 소장처의 청구번호이다. "정양원"는 다음 책을 가리킨다. 정

표 2. 안성판 방각본 소설의 판본 현황

작품명	표제	간기	장수	발행처	발행년	소장처	출전
삼국지	삼국지 권지 습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전집1 (481~490)
	삼국지 권지 습	안성동문이신판	20	북촌서포	1912(1 판)	예상	
	삼국지 권지 습*	안성동문이신판	20	박성철서점	1917(2 판)	국도관	한古朝 48-33-4
심청전	심청전		21	북촌서포	1912(1 판)	예상	
	심청전*		21	박성철서점	1917(2 판)	국도관	한古朝 48-46-5
양풍운전	양풍운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예상	
	양풍운전	안성동문이신판	20	박성철서점	1917(1 판)	국도관	한古朝 48-72
입장군전	님장군전 *	丁亥孟冬	21	박성철서점	1917(1 판)	국도관	한古朝 48-69-4
장풍운전	장풍운전		19	북촌서포	1912(1 판)	예상	
	장풍운전 *		19	박성철서점	1917(2 판)	국도관	한古朝 48-53-6
적성의전	적성의전	안성동문이신판	19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정양완(143~146)
제마무전	제마무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단국대	고 853.5 체626
조용전	도용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정양완(126~130)
	도용전		20	북촌서포	1912(1 판)	예상	
	도용전		20	박성철서점	1917(2 판)	국도관	한古朝 48-31-4
진대방전	진디방전		16	박성철서점	1917(1 판)	국도관	한古朝 48-68
춘향전	춘향전*	안성동문이신판	20	안성동문리	?	서강대	고서 춘92가
	춘향전 <sup>9)</sup>	안성동문이신판	20	북촌서포	1912	김동욱	전집3(305~314)
	춘향전*	안성동문이신판	20	박성철서점	1917(2 판)	국도관	한古朝 48-252-2
홍길동전	홍길동전	안성동문이신판	23	안성동문리	?	동양문고	전집3 (445~456)
	홍길동전		19	박성철서점	1917(1 판)	국도관	한古朝 48-44-2

양완, 『일본동양문고본 고전소설해제』 국학자료원, 1994.

새 발굴본은 표제에 “\*”로 표시했다

- 9) 북촌서포에서 발행한 <춘향전>은 이창현의 논문(1999)에 그 판권지 사진이 실려 있으나,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다. 김동욱 교수가 소장했던 책들은 대부분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에 기증되었다고 하나, 그곳에도 이 책은 없다.

### 3. 안성판 방각본 소설 판본과 경판의 관련 양상

안성판과 경판의 판본 대비는 개별 이본론에서 산별적으로 행해졌고, 이는 이창현 교수의 학위 논문 및 후속 논저<sup>10)</sup>에서 총체적으로 집대성되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판본과 동일한 판본에 대해서도 이창현 교수가 경판으로 판단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필자도 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번다하게 재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롭게 발굴된 판본과 수습된 정보가 있어서 출판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추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의는 필요하겠기에, 이창현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성판과 경판과의 관련 양상을 작품별로 정리하겠다.<sup>11)</sup>

#### ○삼국지

안성판은 안성동문리, 복촌서포,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셋은 모두 동일 판목을 썼다. 안성판(삼20장본B)은 오권본 체제로 된 경판(대영박물관 소장본, 삼20장본A)과 관련이 있다. 즉, 삼20장본B의 1장에서 16장까지는 삼20장본A의 1장에서 16장까지를 번각(翻刻)하고, 삼20장본B의 17장에서 20장까지는 삼20장본B의 17장에서 20장까지를 축약 개각(改刻)한 것이다.

그런데 현전 안성판 ‘삼국지 권지삼’에 대해 이창현 교수는 ‘낙질본’이라 언급하면서도 그 간행 시기가 독립적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했고<sup>12)</sup>, 이에 대해 최근 이은봉 교수는 ‘삼국지 권지삼’이 원래 삼국지에 없는 내용이고, 구활자본 소설인 <조자룡전>, <산양대전>, <삼국대전> 등과 같은 내용의 소설임을 들어 애초에 ‘삼국지 권지삼’이 따로 출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sup>13)</sup>

10) 이창현(1995), 이창현(1999), 이창현(2000).

11) 각 판본의 소장처는 뒤에 별도로 실는다. 판본에 대한 명칭은 이창현 교수의 것을 따른다.

12) 이창현(2000), 103~106쪽

13) 이은봉, 「방각본 <삼국지>의 변개 양상 연구-‘삼국지 권지삼’을 중심으로」 『고소

### ○심청전

안성판은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심 2장본 B은 “宋洞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김근수 소장본(심20장본)과 간기가 없는 일본동양문고 소장본(심21장본A)과 관련이 있다. 즉, 심20장본을 정사(精寫)하여 판하본(板下本)으로 삼고 이를 개각한 것이 심 2장본들이다. 심 2장본 A와 심 21장본B는 동일 판목으로 인행(印行)한 것이다.

### ○양풍운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와 박성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양 20장본 A은 간기 없는 김동욱 소장본과 동일 판본인 국립도서관소장본(양24장본), 그리고 역시 간기 없는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양20장본B)와 관련이 있다. 즉,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양24장본의 모본을 축약 개각한 것이 양20장본A이고, 이를 번각한 것이 양20장본B이다.

### ○임장군전

안성판은 박성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박성철서점본은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다. 안성판(님21장본B)는 “華泉重刊”이란 간기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님27장본A)와 간기 없는 성균관대학교도서관 소장본(님27장본B), 그리고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는 일본동양문고 소장본(님 21장본 A), “庚寅早秋布洞重刊”이란 간기가 있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님20장본)과 관련이 있다. 즉, 님27장본A를 번각한 것이 님27장본B인데, 이들 중 하나를 축약하여 개각한 것이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는 님21장본이다. 님21장본A와 님21장본B는 동일 판목을 썼다. 님20장본은 님27장본과 님21장본을 부분적으로 축약 개각한 것이다.



○장풍운전

안성판은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장 19장본 B)은 간기 없는 동양어학교소장본(장31장본)과 역시 간기 없는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본(장19장본A)과 관련이 있다. 먼저 장19장본A와 장19장본B는 같은 판목으로 인행된 것인데, 그 판목의 짜임이 독특하다. 즉, 장19장본은 1장에서 14장까지는 장31장본의 1장에서 14장까지의 판목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 장31장본의 15장 이후를 축약하여 개각한 새 판목을 다시 가져다 쓴 것이다. 그래서 앞 부분은 상화문 어미에 14행으로 되어 있고, 뒷 부분은 상허어미에 16행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장19장본은 두 개의 판목을 짜집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뒷 부분의 판목을 온전히 쓴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즉, 새 판목은 아마 19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19장의 전엽 6행 이후의 글자들을 밀어 버리고 인행한 것이 바로 장 19장본의 뒷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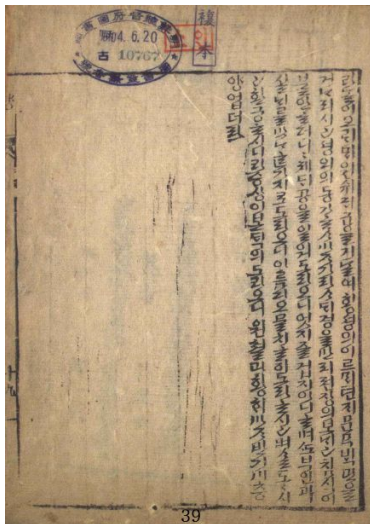


그림 3 <장풍운전> 19장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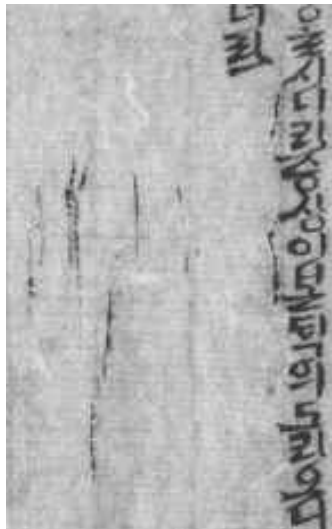


그림 4 <장풍운전> 산략흔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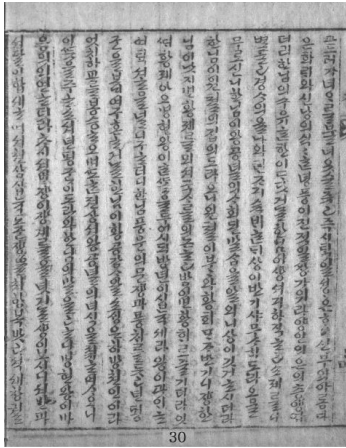


그림 5 <장풍운전> 14장 뒷면  
상화문사어미에 반엽 14행이다



그림 6 <장풍운전> 15장 앞면  
상흑어미에 반엽 16행이다

○적성의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서만 발행되었다. 안성판 (적 19장본)은 간기 없는 김동욱소장본(적23장본)과 관련이 있다. 즉, 적19장본은 적23장본을 정사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제마무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서만 발행되었다. 안성판 (제 20장본 A)는 간기 없는 대영박물관 소장본(제23장본), 그리고 간기 없는 일본동양문고 소장본(제20장본B)과 관련이 있다. 이 세 판본 모두 제마무전 16장 뒤에 회심곡이 독립 장수로 합철되어 있다. 제23장본은 회심곡 7장, 제20장본A, B는 6장이 합철되었다. 제20장본A는 제23장본의 제마무전 16장을 번각했고, 회심곡 6장은 제23장본의 회심곡 7장을 정사하여 개각한 것이다. 제20장본B는 제20장본A를 번각한 것이다.

## ○조용전

안성판은 먼저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되었고, 그 후 다른 판목으로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따로 발행되었다. 즉 안성판 조용전의 발행에는 두 종류의 판목이 쓰였다. 동문리 판본(조20장본B)과 북촌서포 및 박성철서점 판본(조20장본C)은 “紅樹洞重刊”이란 간기가 있는 대영박물관 소장본과 김동욱 소장본(조30장본), 간기가 없는 대영박물관 소장본(조20장본A)과 관련이 있다. 먼저, 조20장본A는 조30장본을 대체로 축약하면서 문구를 더하기도 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조20장본B는 이 조20장본A를 변각한 판본이다. 이와는 별개로 조20장본C는 조30장본을 정사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 ○진대방전

안성판은 박성철서점에서만 발행되었다. 안성판(진16장본)은 “油洞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김동욱 소장본(진36장본), 간기 없는 대영박물관 소장본,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진28장본B), 그리고 역시 간기 없는 동양어학교 소장본(진20장본), 대영박물관 소장본(진28장본A) 등과 관련이 있다. 진16장본은 진대방전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나머지 판본들은 진대방전과 ‘내훈’ 그리고 ‘내훈제사’가 독립 장수로 합철되어 있다. 판본들간의 관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진16장본은 진대방 16장과 내훈 및 내훈제사 12장으로 구성된 진28장본A의 진대방 16장과 동일한 판목으로 인행된 것이다. 진28장본A와 나머지 판본과의 관계는 뒤의 표로 대신하겠다.

## ○춘향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 북촌서포, 박성철서점 모두에서 발행되었다. 안성판(춘20장본)은 간기없는 동양어학교 소장본(춘30장본)과 관련이 있다. 즉, 춘20장본은 춘30장본을 축약하여 개각한 것이다.

## ○홍길동전

안성판은 안성 동문리에서 간행한 것과 박성철서점에서 발행한 것이 있다.

두 판본은 서로 판목이 다르다. 동문리 판본(홍23장본A)과 박성칠서점본(홍19장본)은 “冶洞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동양어학교 소장본(홍30장본)과 “漁靑橋新刊”이란 간기가 있는 오한근 소장본(홍23장본B)과 관련이 있다. 즉, 홍23장본은 홍30장본을 정사하여 개각한 판본이다. 홍23장본A와 홍23장본B는 번각 관계에 있는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아직 논란 중이다. 홍19장본은 홍30장본에 대해 일부는 번각을 하고 일부는 축약하여 개각을 했다. 즉, 홍30장본의 1장에서 14장까지를 홍19장본의 1장에서 14장까지로 번각했고, 홍30장본의 15장에서 24장 후엽 6행까지를 홍19장본 15장에서 19장까지로 축약하여 개각했다.

지금까지 안성판과 경판과의 관련 양상을 정리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표 3. 안성 방각본과 경판의 관련 양상

작품명	판본명	판본 소개	관련 양상
삼국지	삼20장본A	오권본 체제 권지습	
	삼20장본B	안성판(안>북>박)	삼20장본A 1~16 -번각- 삼20장본B 1~16 삼20장본A 17~20 -축약 개각- 삼20장본B 17~20
	삼20장본C	美洞新板	삼20장본B -번각- 삼20장본C
심청전	심20장본	宋洞新刊	
	심21장본A	무간기	심20장본 -정사 개각- 심21장본AB
	심21장본B	안성판(북>박)	심21장본A -동일 판목- 심21장본B
양풍운전	양24장본	무간기	
	양20장본A	안성판(안>박)	양24장본의 모본* -축약 개각- 양20장본A
	양20장본B	무간기	양20장본A -번각- 양20장본B
입장군전	남27장본A	華泉重刊	
	남27장본B	무간기	남27장본A -번각- 남27장본B
	남21장본A	丁亥孟冬	남27장본 -축약 개각- 남21장본
	남21장본B	안성판(박). 丁亥孟冬	남21장본A -동일 판목- 남21장본B
	남20장본	庚寅早秋布洞重刊	남27장본, 남21장본 -축약 개각- 남20장본

14) 경판과 안성판의 관련 양상에서 “\*” 표시가 붙은 판본은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이본 대비에서 그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다.

장풍운전	장31 장본	무간기	
	장19장본A	19장 전엽 6행 이하 산략	장31장본 1~14 -판목 차용- 장19장본 1~14 장31장본 15이하를 축약한 새 판목 * 판목 차용- 장19장본 15~19.
	장19장본B	안성판(북>박).	장19장본A -동일 판목- 장19장본B
적성의전	적23장본	무간기	
	적19장본	안성판(안)	적23장본 -정사 개각- 적9 장본
제마무전	제23장본	제마무전16+회심곡7	
	제20장본A	안성판(안). 제마무전16+회심곡4	제23장본 제16 -변각- 제20장본A 제16 제23장본 회7 -정사 개각- 제20장본A 회4
	제20장본B	제마무전16+회심곡4	제20장본A -변각- 제20장본B
조웅전	조30장본	紅樹洞重刊	
	조20장본A	무간기	조30장본 -축약 변용 개각- 조20장본A
	조20장본B	안성판(안)	조20장본A -변각- 조20장본B
	조20장본C	안성판(북>박)	조30장본 -정사 개각- 조20장본C
진대방전	진36 장본	由洞新刊 (진대방18+내훈제사2+내훈16)	
	진28장본B	진대방 18+내훈 10	진36장본 진대방 -변각- 진28장본B 진대방 진36장본 내훈 -부분 변각- 진28장본B 내훈
	진20장본	진대방18+내훈제사2	진36장본 -동일- 진20장본. '내훈16'만 빠짐
	진28장본A	진대방 16+내훈및내훈제사12	진36장본 진대방 -정사누락개각- 진 28장본 A 진대방 진36장본 내훈/내훈제사 -정사개각- 진 28장본 A 내훈및내훈제사
	진16 장본	안성판(박). 진대방16	진28장A 진대방 -동일 판목- 진6 장본
춘향전	춘30장본	무간기	
	춘20장본	안성판(안>북>박)	춘30장본 -축약 개각- 춘20 장본
홍길동전	홍30장본	治洞新刊	
	홍23장본A	안성판(안)	홍30장본 -정사 개각- 홍23 장본
	홍23장본B	漁靑橋新刊	홍23장본 A외B는 변각. 선후는 논란 중.
	홍19장본	안성판(박)	홍30장본 1~14 -변각- 홍19장본 1~14 홍30장본 15~24후엽6행 -축약 개각- 홍19장본 15~19

#### 4. 안성판 방각본 소설의 출판

새로운 안성판 방각본 소설 판본들이 발굴되고,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발행자였던 박성칠 씨의 정확한 생몰연대(1856~1923) 등을 알게 됨에 따라, 안성판 방각본 소설의 출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안성판 방각본의 출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성 동문리 시절의 방각 활동이다. 1909년 이후의 판본은 판권지에서 출판 시기와 주체, 장소 등을 알 수 있고, 판본끼리의 대비에서 판목의 짜임 등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겠다. 먼저, 안성판 방각본의 출판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김동욱 교수는 경판과의 관련을 감안할 때 1850년대쯤일 것으로 추정했고<sup>15)</sup>, 이창현 교수는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진대방전이 대영박물관 소장본 진대방전(진28장본A)와 동일판목임을 들어서, 만약 박성칠서점의 전신인 가칭 朴星七家에서 진대방전을 판각했다면 안성 지역의 방각 활동은 1860년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sup>16)</sup> 안성의 방각본들이 대체로 20장본이라는 점에서는 1880년대 이후에 방각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했다.<sup>17)</sup> 그러나 박성칠의 생몰년(1856~1923)을 고려하면, 1860년대로 이전으로의 소급은 불가능하다. 진대방전의 경우, 내훈 및 내훈제사가 합본된 경판의 판목을 박성칠이 인수하여 진대방전 부분만을 인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다.

이 시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얽혀 있다. 즉, 안성판 진대방

---

15) 김동욱(1970), 114쪽.

16) 이창현(1999), 122쪽.

17) 이창현(2000), 461쪽.

전의 판목을 박성칠서점의 관권지(1917년) 이전에 안성에서 정말로 판각했는지, 그리고 북촌서포와 북성칠서점 이전에 안성에는 “안성동문이신관”이란 간기에서 추정되는 ‘동문리 방각소’ 이외의 다른 방각소가 운영되어 있었는지<sup>18)</sup>,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어찌되었는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북촌서포의 조웅전(조 20장본 C)과 박성칠서점의 홍길동전(홍 19장본)에 있다. 즉,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출판방식을 보면, 발행하려는 책의 판목이 동문리 방각소에 있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쓰고<sup>19)</sup>, 없으면 다른 판목을 쓰는 경우<sup>20)</sup>가 많은데, 조웅전과 홍길동전은 동문리에서 발간한 ‘조20장본B’와 ‘홍23장본A’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판목으로 북촌서포에서 ‘조20장본C’를 그리고 박성칠서점에서 ‘홍19장본’을 출판했던 것이다. 이창현 교수는 이들 판본의 존재를 근거로 동문리 방각소와 경쟁하는 또 다른 방각소, 즉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전신으로서 가칭 ‘朴屋七家’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sup>21)</sup> 안성 방각본 출판에서 논란의 핵심은 이 ‘朴屋七家’가 정말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확정된 사실들을 간추려 보자. 먼저 안성 방각본 소설들의 발행소와 순서를 정리하면, “안성동문이신관”이란 간기가 있는 안성 동문리 방각소가 제일 먼저이고, 발행 시기와 주체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은 1912년(明治45年) 춘향전 초판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북촌서포에

18) 이창현 교수는 안성 동문리 방각소 이외의 경쟁 업체가 있었을 것이라던 전제 아래, 박성칠이 안성 동문리 방각소를 운영하였을 경우와 경쟁 업체를 운영하였을 경우 중에서 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창현(1999), 129~130쪽.

19) 삼국지 권지습, 양풍운전, 춘향전.

20) 넘장군전, 심청전, 장풍운전, 진대방전 이때 다른 판목을 쓴다는 말의 의미는 판목을 아예 개각(開刻)하는 것부터 부분 개각(改刻), 판목 차용(借用) 등 여러 상황을 포괄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박성칠은 북촌서포 이후에는 판목을 차용만 했지 개각한 것 같지는 않다. 이후의 논의 참고.

21) 이창현(1999), 119쪽.

서 박성철이 발행했다. 그리고 다시 1917년(大正6年) 춘향전 재판을 비롯한 여러 서적들을 박성철서점에서 박성철이 발행했다. 안성 동문리의 판목을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인수하여 쓰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안성 방각본 소설의 출판

안성판			관련 경판	안성 동문리	북촌 서포	박성철 서점	비고
표제	장수	어미책					
삼국지 권지습	20	상화문/15	삼20장본A(오권본)	○	○	○	번각, 개각
심청전	21	상혹/15	심20장본(宋洞新刊) 심21장본A		○	○	동일판목: 심21장본A
양풍운전	20	상화문/15	양24장본	○		○	개각
남장군전	21	상혹/15	남27장본(華泉重刊) 남21장본A(丁亥孟冬) 남20장본(庚寅早秋布洞重刊)			○	동일판목: 남21장본A
장풍운전	19	복합판식	장31장본 장19장본A		○	○	동일판목: 장19장본A
적성의전	19	상화문/15	적23장본	○			개각
제마무전	20	상화문/15	제23장본	○			번각, 개각
도옹전	20	상화문/15	조30장본(紅樹洞重刊) 조20장본A	○			번각
도옹전	20	상혹/15	조30장본(紅樹洞重刊)		○	○	동일판목:?
진디방전	16	상화문/15	진28장본A			○	동일판목: 진28장본A
춘향전	20	상화문/15	춘30장본	○	○	○	개각
홍길동전	23	상화문/15	홍30장본(冶洞新刊) 홍23장본B(漁靑橋新刊)	○			개각
홍길동전	19	복합판식	홍30장본(冶洞新刊)			○	동일판목:?

위 표에서 안성 방각본은 판목 조성은 세 가지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안성에서 기존의 판본을 모본으로 삼아 개각(改刻)하거나 번



각(翻刻)하는 경우이다. 이는 안성 동문리에서 판목을 조성할 때 쓰는 방식이다. 이 때 만들어진 판목 중 일부는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재인행되었다.

둘째, 기존의 판목 자체를 인수하여 재인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박성철이 북촌서포나 박성철서점에서 발행한 판본들에 주로 해당한다. 인수의 대상은 안성 동문리의 판목과 경판의 판목들이었다. 경판의 판목을 인수했을 경우 동일판목으로 인행한 경판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경판의 판목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박성철이 판목을 조성했는데, 그 판본이 경판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먼저, 이번에 입수된 “丁亥孟冬”이란 간기가 있는 21장본 입장군전을 보자. “丁亥孟冬”이란 간기에서 애초에 이 판목의 조성이 1887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21장본 판본과 님27장본은 경인(庚寅, 1890)년에 20장본으로 축약되어 개각되었다. 그 축약 개각본이 “庚寅早秋布洞重刊”이란 간기를 지닌 님20장본이다. 박성철이 북촌서포 이전에 안성 동문리와는 별개의 방각소를 운영했다면, 유독 정해년(1887)의 입장군전 판목에 대해서만 간기를 남겼을 까닭은 없다. 오히려 판목의 조성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동시에 여러 판목을 동일한 판식으로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장군전의 경우는 정해년(1887)의 21장본 판목이 경판에 있었는데, 경인년(1890)에 20장본의 판본이 나오면서 21장본의 판본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경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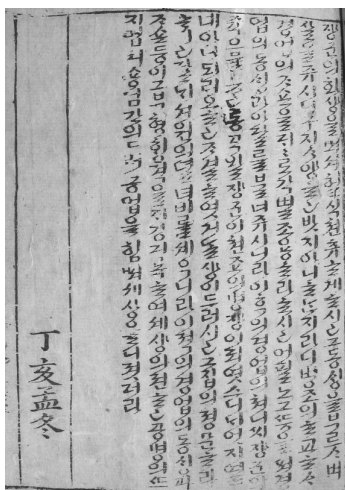


그림 7 <임장군전>간기

년(1890) 이후 어느 시점에 박성철이 21장본의 판목(丁亥孟冬)을 인수하여 박성철서점에서 인행했다고(大正6年, 1917)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초판이 나온 판목들이 박성철가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경판의 것을 인수한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번에 발굴된 박성철서점의 19장본 장풍운전이다. 북촌서포에서 초판본이 나온 19장본 장풍운전을 보면, 판목을 개각(改刻)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판목을 짜집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9장본에서 14장까지는 경판 31장본의 판목을 차용하고, 뒷부분은 31장본의 15장 이하를 축약한 어떤 판본의 판목을 가져다가 19장 전엽 6행 이후를 산략해서 인행한 것이다. 만약 박성철이 이 판목을 조성했다면,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산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즉, 박성철은 누군가 이미 조성한 판목들을 가져다 인행한 것이다. 다만, 산략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다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박성철이 산략했을 수도 있고, 경판의 방각업자 누군가가 산략해서 19장본으로 조성해 놓은 것을 박성철이 인수했을 수도 있다. 전자라면 박성철서점 판권지가 없는 한중연 소장본 19장본 장풍운전(장19장본B)은 박성철이나 후대의 누군가가 인행한 것이 되고, 후자라면 경판의 방각업자가 인행한 것이 된다.

셋째 근거는 안성 동문리 방각소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북촌서포나 박성철서점에서만 간행된 판본들은 그 판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촌서포나 박성철서점에서만 발행된 판본들은 장수(張數)와 어미(魚尾), 반엽(半葉)의 행수(行數) 모두 일정하지 않다. 이는 이들 판본들은 박성철이 일괄적으로 판목을 조성하여 인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당한 판목을 인수하여 인행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의 박성철이 따로 판목을 조성하지 않

고 동문리의 판목이나 경판의 판목을 인수하여 발행했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하고 나면, 앞서의 도옹전(조 20장본 C)과 홍길동전(홍19장본)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즉, 동문리의 판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성철이 따로 판목을 인수하여 발행했느냐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는 이에 대해 동문리 방각소의 경쟁 업체로서 '박성철가'의 존재를 상정하여 이곳에서 이 판본들의 판목을 조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옹전과 홍길동전은 이미 그 판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sup>22)</sup> 박성철서점 이전의 방각소인 박성철가에서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안성 동문리 방각소에서 조성한 판목들이 모두 상화문어미에 반엽15행으로 일률적인 것과 대비하여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더구나 홍길동전의 경우 장풍운전처럼 두 판목을 짜집기한 것이기에 박성철이 단독으로 판목을 조성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왜 박성철은 굳이 동문리의 판목을 놔두고 경판을 인수했던 것일까? 경판 판목이 동문리 판목에 비해 갖는 이점에 대해 이창현 교수의 분석<sup>23)</sup>이 적절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도옹전의 경우 경판(紅樹洞重刊, 조30장본)을 축약 변용하여 개각한 동문리 판본보다, 조30장본을 그대로 정사(精寫)하여 판하본으로 삼아 개각한 경판 판목이 내용면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박성철은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홍길동전은 동문리의 판목 23장본인데 비해 박성철서점에서 발행한 책의 판본은 두 판목을 짜집기하여 19장본으로 만듦으로써 종이값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발행한 책이 교양서적까지도

22) 도옹전은 상화문어미에 반엽15행, 홍길동전은 상화문어미에 복합판식이다. 즉 14장까지는 상화문어미에 반엽 14행, 15장부터는 상화문어미에 반엽16행이다.

23) 이창현(1999),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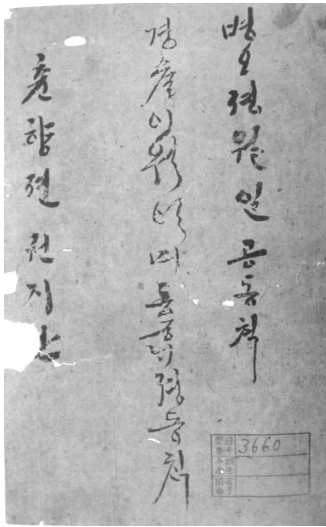


그림 8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  
(춘향전)의 표지 소장기(所藏記)

모두 20장본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측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안성 방각본의 방각 활동은 언제부터였을까?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단독으로 판목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성 동문리의 판목 조성 시기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에 추정이 어렵다. 다만, 이번에 발굴한 “안성동문이신간”의 춘향전의 표지에 소장(所藏)과 관련된 문장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안성판 춘향전은 원래 간기 있는 북촌서포의 것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촌서포 이전의 동문리 판본과 박성칠서점의 재판본이 발굴되었다. 그런데, 서강대 도서관에 소장된 동문리 판본의 표지에, “병오정월일 공동취 경술이월일미동궁내정동취 춘향전권지단”이란 글귀가 있는 것이다. 첫 줄의 문장은 병오년(丙午, 1906)에 소장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다음 줄은 경술년(庚戌, 1910)에 미동(美洞)과 궁내정동(宮內井洞)에서 이 책을 소장했었음<sup>24)</sup>을 알려 준다. 이를 참고하면, 동문리 방각소에서 늦어도 1906년 이전에 방각 활동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24) 미동(美洞)과 궁내정동(宮內井洞)은 일제시대 때 황금정일정목(黃金町一丁目)으로 편입된 곳으로 현재는 소공동 덕수궁 즈음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서강대도서관 소장본 춘향전은 안성 동문리 방각본 소설본이 단지 안성 인근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까지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필자의 지난 논문(2006)에선 이 소장기를 오독하였는데, 고려대학교 지연숙 선생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

그런데 안성 동문리의 판본들을 박성철이 인수하여 발행했다는 점에서 안성 동문리와 박성철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성 동문리의 방각소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성철이 직접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25)</sup> 이는 동문리의 판목들로 북촌서포나 박성철서점에서 다시 책을 인정한 것과, 박성철이 동문리에 살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김동욱 교수의 논문에서, 마을 주민 김상옥의 증언을 보면, 북촌서포의 발행자였던 박성철에 대해 “東門里 朴星七書店의 朴星七”로 언급하고 있음<sup>26)</sup>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철서점의 위치가 동문리가 아니라 기좌리인데도 박성철을 그렇게 언급한 것은 그가 동문리에 오래 살았기 때문<sup>27)</sup>으로 보인다.

안성 동문리의 방각소를 만약 박성철이 운영했다면, 안성 동문리의 방각활동은 박성철의 생몰년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성철은 1856년에 태어나 1923년에 죽었으니(호적의 기록), 방각활동은 최소한 그가 성인이 된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 5. 결론

새롭게 발굴된 안성 방각본 소설본과 경판과의 대비를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성 방각본 소설본의 출판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크게 출판 시기와 출판 주체, 출판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독자적으로 판각을 하지 않았고, 안성 동문리 방각소의 판목과 경

25) 이 가능성은 앞서 이창현 교수도 제기한 바 있다. 이창현(1999), 129쪽.

26) 김동욱(1970), 115쪽.

27) 박성철의 손자가 동문리에서 20리 밖으로 이사를 갔다는 언급이 있다. 김동욱(1970), 116쪽.

판의 판목을 인수하여 발행했다면, 안성 동문리 방각소의 간행 시점이 안성 방각본의 출판 시기 문제에서 중요해진다. 이때 관건은 누가 안성 동문리 방각소를 운영했느냐인데, 만약 동문리의 판목을 인수한 박성철로 본다면, 그 시기는 박성철의 생몰년에 근거하여 가늠될 수 있겠다.

기존의 논의에서 안성판으로 언급되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이 논문에서 배제된 판본들이 있다.<sup>28)</sup> 이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판본 대비가 진행되면 안성판 방각본의 전모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 방각본의 연구는 이제 겨우 기초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작품의 선정과 판목 조성 과정, 그리고 발행자 및 인쇄자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각본의 출판이 안성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또 안성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이 방각본 출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다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동욱, 「한글 고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울』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0, 38~67쪽.
- 김동욱, 「坊刻本에 대하여」, 『동방학지』 11,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70, 97 ~ 139쪽.
- 김동욱, 『영인고소설판각본진집』 1~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4.
-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이민희, 「조선 후기 경판 방각소설 판본의 형태물리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은봉, 「방각본 <삼국지>의 변개 양상 연구 - '삼국지 권지삼'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331~358쪽.

---

28) 이정원(2005) 168~169쪽 참조

- 이정원, 「安城板 坊刻本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61~184쪽.
- 이창현, 「경판방각소설의 상업적 성격과 이본출현에 대한 연구」, 『원각어문연구』 1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79~208쪽.
- 이창현, 『京板坊刻小説 板本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이창현,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한국문화』 2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99~140쪽.
-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정양완, 『일본동양문고본 고전소설해제』, 국학자료원 1994.
- 최호석, 「방각본 출판의 경제성 시론」, 『우리文學研究』 17, 우리문학회, 2004, 361~388쪽.
- 최호석, 「안성의 방각본 출판 입지」,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89~120쪽.
- 최호석, 「안성판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173~197쪽.

K C I

〈첨부〉 안성판과 경판 관련 판본 출전

작품명	판본명	판본 소개	출전
삼국지	삼20장본A	오권본 체제 권지습	대영박물관소장본(전집 4. 193 ~257).
	삼20장본B	안성 동문리	동양문고소장본 (전집 1. 481 ~ 490)
		북촌서포(1판)	예상
		박성철서점(2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48-33-4)
삼20장본C	美洞新板	하동호소장본(전집 4. 183 ~192).	
심청전	심20 장본	宋洞新刊	김근수소장본(전집 2. 119 ~129).
	심21장본A	무간기	일본동양문고소장본(전집 2. 131 ~141).
	심21장본B	북촌서포(1판)	예상
		박성철서점(2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48-46-5)
양풍운전	양24 장본	무간기	김동욱소장본(전집 2. 227 ~238).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48-76)
	양20장본A	안성 동문리	예상
		박성철서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48-72)
	양20장본B	무간기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813.5오543).
임장군전	남27장본A	華泉重刊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전집 2. 431 ~444).
	남27장본B	무간기	성균관대학교도서관소장본(D7B-34).
	남21장본A	丁亥孟冬	일본동양문고소장본(전집 2. 445 ~455).
	남21장본B	丁亥孟冬 . 박성철서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48-69-4)
	남20 장본	庚寅早秋布洞重刊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813.5우979).
장풍운전	장31 장본	무간기	동양어학교소장본(전집 5. 769 ~784).
	장19장본A	19장 전엽 6행 이하 산략.	한국학중앙연구원소장본 (도서번호D7B-105, 필름번호MF35/008094)
	장19장본B	북촌서포(1판)	예상
		박성철서점(2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48-53-6)
적성의견	적23 장본	무간기	김동욱소장본(전집 3. 1 ~12).



작품명	판본명	판본 소개	출전
적성 의견	적19장본	안성 동문리	일본동양문고소장본(정양완. 143~146)
제 마 무 전	제23장본	제마무전16+회심곡7	대영박물관소장본(전집 5. 845~856).
	제20장본A	안성 동문리(제마무전16+회심곡4)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고 853.5 재626)
	제20장본B	제마무전16+회심곡4	일본동양문고소장본(정양완. 131~142).
조 웅 전	조30장본	紅樹洞重刊	동양어학교소장본(전집 5. 869~883) 국립중앙도서관본(한 古朝 48-75).
	조20장본A	무간기	대영박물관소장본(전집 5. 857~867).
	조20장본B	안성 동문리	일본동양문고소장본(정양완. 126~130).
	조20장본C	북촌서포(1판)	예상
박성철서점(2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 古朝 48-31-4).	
진 대 방 전	진36장본	由洞新刊 (진대방18+내훈제사2+내훈6)	김동욱소장본(전집 3. 201~209).
	진28장본B	진대방 18+내훈 10	대영박물관소장본(전집 5. 897~906).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813.5주 488)
	진20장본	진대방18+내훈제사2	동양어학교소장본(전집 5. 885~894).
	진28장본A	진대방16+내훈/내훈제사2	대영박물관소장본(전집 5. 911~919).
	진16장본	박성철서점(진대방 16)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 古朝 48-68)
춘 향 전	춘30장본		동양어학교소장본(전집 5. 941~956). 일본동경외국어대학교소장본(김석배 사본).
	춘20장본	안성 동문리	서강대도서관소장본(고서 춘92가)
		북촌서포(1판) 박성철서점(2판)	김동욱소장본(전집 3. 305~314)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 古朝 48-252-2)
홍 길 동 전	홍30장본	冶洞新刊	동양어학교소장본(전집 5. 1003~1018)
	홍23장본A	안성 동문리	일본동양문고소장본(전집 3. 445~456).
	홍23장본B	漁靑橋新刊	오한근소장본(전집 3. 423~434).
	홍19장본	박성철서점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 古朝 48-44-2)

ABSTRACT

A Study of the Novel block print editions in Anseong

Lee, Jeong-Won

This paper is a research on what the list of the novel block print editions was and how it was published in Anseong.

The companies which published the novel were 'Anseong Dongmunri', 'Buckchonseopo', 'Bakseongchilseojeom'. We could verify that from the colophon or copyright sheet. The works published at those company were 11, and the print blocks were 13. Each book was published through recarving the novel book which printed in seoul, or purchasing and reprinting the print block.

The main issue about the novel printed in Anseong is when the book was printed and who published it. But now, we know that when Bak Seongchil (1856~1923) who is the publisher of Buckchonseopo and Bakseongchilseojeom was born and died. And also we find out "Chunhyangjeon" a novel book printed in Anseong Dongmunri, on the cover of which the time of the own year(1906) was written. About the matter of who run the Anseong Dongmunri or some publishing company before Buckchonseopo, I presume that Bakseongchil run the company.

**Key Words** Anseong, Anseong block print edition, Bak Seongchil, Anseong Dongmunri, Buckchonseopo, Bakseongchilseojeom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